

## 『三國遺事』의 醫學關聯 內容에 對한 研究

1. 緒論 .....	51
2. 本論 .....	51
2.1. 本草 .....	51
2.2. 陰陽五行 .....	57
2.3. 疾病의 原因 및 治療 .....	59
2.4. 醫政制度 .....	64
3. 結論 .....	65
參考文獻 .....	66

# 『三國遺事』의 醫學關聯 內容에 對한 研究\*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李容範

## 1. 緒論

高麗의 僧侶 一然이 지은 『三國遺事』는 『三國史記』와 더불어 三國時代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귀중한 資料이다.

특히, 그 內容이 野史的 側面이 강하고, 一般 民衆들의 생활상이 잘 묘사되어 있어, 當時의 社會 文化的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될 資料이다.

한 時代의 醫學은 醫學 領域 自體에 대한 研究뿐만 아니라, 社會 諸般 要素의 醫學과의 관계에 대한 研究가 並行될 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三國遺事』는 當時의 醫學을 研究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情報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筆者는 李載浩譯 『三國遺事』(光信出版社, 1993年)를 저본으로 하여 醫學關聯 內容을 찾아내고 그 內容을 類似한 것들끼리 묶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本草

『三國遺事』에 보이는 醫學과 關聯이 있는 內容은

\* 본 논문은 1996년 한국한의학회연구소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역대 한의학 문헌의 고증(1)'에 수록된 내용임

모두 61件으로, 그 內容을 本草, 陰陽五行, 疾病의 原因 및 治療, 醫政制度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2.1. 本草

本草와 關聯있는 內容은 모두 32件으로 다음과 같다.

#### 【원문-1】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柱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p. 677)

#### 【해석】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항상 神雄(桓雄)께 빌어, 변화하여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다. 이때 신(桓雄)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의 형체를 얻을 것이다.”

#### 【원문-2】

第八阿達羅王即位四年丁酉, 東海濱, 有延烏郎細烏女夫婦而居, 一日延烏歸海採藻, 忽有一巖(一云一魚), 負歸日本.(p. 691)

#### 【해석】

제8대 아달라왕 즉위四年 丁酉(158)에 동해 바

닷가에 연오랑과 세오녀가 부부로 살고 있었다. 하루는 연오가 바닷가에 가서 해조(미역 종류)를 따서 돌아오던 중 갑자기 한 바위 (일설에는 한 고기라고도 한다.)가 연오를 싣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원문-3】

第十四儒理(禮)王代, 伊西國人, 來攻金城, 我大舉防禦, 久不能抗, 忽有異兵來助, 皆瑣竹葉, 與我軍并力, 擊賊破之. 軍退後不知所歸, 但見竹葉積於未鄒陵前, 乃知先王陰鷲有功, 因呼竹現陵.(p. 692)

【해석】

제 14대 儒禮王때에 伊西國(지금의 경북 청도군)사람들이 金城을 와서 공격을 하니 우리(신라)편에서 군사를 많이 동원하여 막았으나, 오랫동안 대적할 수는 없었다. 문득 이상한 군사가 와서 도와주었는데, 모두 대나무 잎을 귀에 꽂고 있었다. 우리 군사와 힘을 합쳐 적을 쳐서 무너뜨렸다. 적군이 물러간 후에는 어디로 돌아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대나무 잎이 未鄒王陵앞에 쌓여 있음을 보고, 그 제서야 先王이 陰으로 도와 功이 있음을 알고, 이로 인하여 竹現陵이라고 불렀다.

【원문-4】

王陰長一尺五寸, 難於嘉耦, 發使三道求之. 使至牟梁部, 冬老樹下, 見二狗嚙一屎塊如鼓大, 爭嚙其兩端. 訪於里人, 有一小女告云: “此部相公之女子, 洗滌于此, 隱林而所遺也.” 尋其家檢之, 身長七尺五寸. 具事奏聞, 王遣車遯入宮中, 封爲皇后, 群臣皆賀.(p. 694)

【해석】

왕은 陰莖의 길이가 한자 다섯 치가 되어 배필을 얻기 어려웠다. 그래서 使者를 三道에 보내어 배필을 구했다. 使者가 牟梁部에 이르렀는데 冬老樹 아래에서 개 두 마리가 크기가 복만한 똥 덩어리의 양

쪽 끝을 물고 다투는 것을 보았다. 그 마을 사람에게 물으니 한 소녀가 일러주었다. “이부(牟梁部)의 相公의 딸이 여기서 빨래하다가 수풀 속에 숨어서 눈 것입니다.” 그 집을 찾아 살펴보니 그 여자의 신장이 일곱자 다섯 치나 되었다. 사실대로 상세히 아뢰었더니 왕은 수레를 보내어 그 여자를 궁중에 맞아 들어 황후로 삼았다. 여러 신하가 모두 경하했다.

【원문-5】

初 唐太宗送畫牡丹三色紅紫白, 以其實三升, 王見畫花曰: “此花定無香.”(p. 699)

【해석】

첫째는 당 태종이 홍색·자색·백색의 세가지 색으로 된 모란 그림과, 그 씨 세되를 보냈다. 왕이 그림의 꽃을 보고 말하기를 “이 꽃은 절대로 향기가 없을 것이다.”하였다.

【원문-6】

王曰: “畫花而無蝶, 知其無香. 斯乃唐帝欺寡人之無耦也. 蛙有怒形, 兵士之像, 玉門者, 女根也, 女爲陰也, 其色白, 白西方也. 故知兵在西方, 男根入於女根, 則必死矣. 以是知其易捉.”(p. 700)

【해석】

왕이 말하기를 “꽃을 그렸는데도 나비가 없었으므로 그 향기가 없음을 알았다. 이는 당나라 임금의 나의 배우자가 없음을 모멸한 것이다. 또 개구리의 노한 형상은 병사의 형상이며, 옥문이란 것은 여자의 생식기니, 여자는 陰이고 (陰은)그 색은 백색이며, 백색은 서방이므로 군사가 서방에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자의 생식기는 여자의 생식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므로 이로써 쉽사리 잡을 줄 알았다.”고 하였다.

【원문-7】

聖德王代, 純貞公赴江陵太守(今溟州), 行次海汀

晝饌. 傍有石嶂, 如屏臨海, 高千丈, 上有躑躅花盛開.(p. 717)

【해석】

聖德王때에 純貞公이 강릉 태수(지금의 명주)로 부임할 때 바닷가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그 곁에 바위 봉우리가 있는데 마치 병풍처럼 둘러서서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데, 높이는 천길 이나 되고 그 위에는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원문-8】

曰: “七寶宮殿, 所饌甘滑香潔, 非人間煙火.”(p. 718)

【해석】

말하기를, “일곱 가지 보물로 장식한 궁전에 음식은 달고 향기로우며 청결했는데, 인간의 음식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원문-9】

俾創假宮而入御, 但要質儉, 茅茨不剪, 土階三尺.(p. 744)

【해석】

임시 궁궐을 세우게 하여 거처했는데, 다만 질박하고 검소하게 하여 집의 이영을 자르지 않았으며, 흙 계단은 석자였다.

【원문-10】

此地狹小如蓼葉, 然而秀異, 可爲十六羅漢住地.(p. 745)

【해석】

이 땅이 여뀌 잎처럼 험소하기는 하나, (산천이) 수려하고 기이하니, 十六라한(羅漢)이 살 만 한곳이다

【원문-11】

尋遣九干等, 整蘭橈, 揚桂楫而迎之, 旋欲陪入

內.(p. 746)

【해석】

곧 九干 등을 보내어 蘭의 키를 바로잡고 桂木의 노를 들어 그들을 맞이하여, 곧 모시고 대궐로 들어가려 했다.

【원문-12】

給之以蘭液薰醑, 寢之以文茵彩薦, 至於衣服疋段寶貨之類, 多以軍夫選集而護之.(p. 746)

【해석】

(왕은)그들에게 난초로 만든 음료와 혜초(蕙草)로 만든 술을 주었고, 무늬와 채색이 있는 자리에 재웠다. 심지어 의복과 비단과 보물들은 군사들을 많이 모아서 이를 호위하게 하였다.

【원문-13】

妾也浮海遐尋於烝蠹, 移天復赴於蟠桃, 螭首敢叨, 龍顏是近.(p. 746)

【해석】

(그래서) 저는 바다에 떠서 멀리 증조(蒸棗)를 찾고, 하늘로 가서 멀리 반도(蟠桃)를 찾아, (지금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외람되이 용안(龍顏)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문-14】

王之十七代孫廣世級干, 祗稟朝旨, 主掌厥田, 每歲時釀醑醴, 設以餅飯茶菓庶羞等奠, 年年不墜, 其祭日不失居登王之所定年內五日也.(p. 748)

【해석】

수로왕의 十七대손 廣世 級干(廣世級干)은 조종의 명령을 받들어 그 제전(祭田)을 주관하여 매년 명절마다 술과 단술을 만들고 떡과 밥과 차와 과자 따위 많은 제물(祭物)로써 제사를 지냈으며 매년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제일(祭日)도 거등왕이

정했던 연중 다섯 날을 바꾸지 않았다.

【원문-15】

四方奠枕，萬姓逌衡，俄晞薤露，靡保椿齡。  
乾坤變氣，朝野痛情，金相其躡玉振其聲。  
來苗不絕，薦藻惟馨，日月雖逝，規儀不傾。(p. 751)

【해석】

사방은 모두 안정해지고, 만민이 태평을 맞이했다.  
갑자기 풀잎의 이슬처럼, 대춘(大椿)같은 수명을  
보전하지 못했다.  
천지가 기운이 변해지고, 조야(朝野)가 모두 슬  
퍼했다.  
금바탕같은 그 발자취요, 옥소리같은 그 명성이  
있다.  
후손이 끊어지지 않으니, 영묘(靈廟)의 제전(祭  
奠)이 깨끗했다.  
세월은 비록 흘렀으나, 그 규범만은 허물어지지  
않았다.

【원문-16】

時王女病革，使召墨胡子，焚香表誓，王女之病尋  
愈。(p. 756)

【해석】

이 때 왕녀가 병이 위급해서 묵호자를 불러다가  
향을 피우고 소원을 말하니, 왕녀의 병이 즉시 나았다.

【원문-17】

塔方四面五層，其彫鏤甚奇，石微赤斑色，其質良  
脆，非此方類也。本草所云點鷄冠血爲驗者，是也。(p. 768)

【해석】

탑은 사면이 오층으로 그 조각은 매우 기묘하며,  
돌에는 얼은 붉은 무늬가 드리워져 있고 그 질이 좋

고 부드러우므로 우리 나라의 것이 아니다. 本草란  
책에서 말한 닭의 볏의 피를 찍어서 시험했다 한 것  
이 이것이다.

【원문-18】

塵方何處匪眞鄉  
香火因緣最我邦  
不是育王難下手  
月城來訪舊行藏。(p. 770)

【해석】

이 세상 어느 곳이 진향(眞鄉)아니라만  
향화(香火)의 인연은 우리 나라가 으뜸이리  
아육왕이 착수 못한 것이 아니라  
월성(月城) 옛터를 찾아온 것이니

【원문-19】

比丘卒既葬，塚上生蓮。(p. 773)

【해석】

중이 죽어서 장사지냈더니 그 무덤 위에서 연(蓮)  
이 피어났다.

【원문-20】

中安萬佛，大者逾方寸，小者八九分。其頭或巨黍  
者，或半菽者。(p. 774)

【해석】

그 속에는 또 부처 一萬 개가 모셔져 있었는데 큰  
것은 사방으로 한치가 넘고 작은 것은 八, 九分쯤 되  
었다. 그 머리는 혹은 큰 기장(黍)만하고 혹은 콩알  
반쪽 만했다.

【원문-21】

更鑲金玉爲流蘇幡蓋，菴羅，薝蔔花果莊嚴，百步樓  
閣，臺殿堂樹，都大雖微，勢皆活動。(p. 774)

【해석】

다시 금과 옥을 새겨 유소번개(流蘇幡蓋)와 암라(菴羅) 담복(蔞菴) 화과(花果)의 장엄한 것과 백보누각(樓閣) 대전(臺殿) 당사(堂樹)를 만들었는데 전체 크기가 비록 작기는 했으나 기세가 모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 【해석-22】

曰：“我等是金州界人，向有一比丘到我云：‘我住東京衆生寺久矣，欲以四事之難，緣化到此。’是以斂施隣間，得米六碩鹽四碩，負載以來。”(p. 776)

## 【해석】

말하기를 “우리들은 金州(김해)지방 사람인데, 지난번에 한 비구 스님이 우리를 찾아와 말하기를, ‘나는 東京(경주) 衆生寺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四事의 어려움 때문에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들이 이웃 마을에 시주를 거두어 쌀 여섯 섬과 소금 너섬을 얻어서 싣고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 【원문-23】

又大定十三年癸巳間，有僧占崇，得住茲寺，不解文字，性本純粹，精勤香火。(p. 777)

## 【해석】

또 대정(大定)十三年 癸巳(1173)년에 점승(占崇)이란 중이 이 절에 살고 있었다. 글자는 알지 못했으나 성질이 본래 순수하여 향화(香火)를 부지런히 받들었다

## 【원문-24】

栢栗寺(p. 777)

## 【해석】

백률사

## 【원문-25】

路傍樹至今名見郎， 又俚言似如樹〔一作印如樹〕。(p. 786)

## 【해석】

노방수(路傍樹)를 지금까지도 견랑(見郎)이라 하고, 또 우리말로는 사여수(似如樹 = 바다나무 = 곧 見樹) -혹은 인여수(印如樹)라고도 쓴다. 라고 한다.

## 【원문-26】

未盈三載，景龍三年己酉四月八日，聖德王即位八年也。日將夕，有一娘子年幾二十，姿儀殊妙，氣襲蘭麝，俄然到北庵〔鄉傳云南庵〕，請寄宿焉。(p. 787)

## 【해석】

三년이 채 못되어 景龍(景龍)三年 己酉[706] 四월 八일은 [신라]성덕왕 즉위 八年이었다. 날이 바야흐로 저물려 하는데, 나이가 한 二十된지한 자태가 썩 아름다운 한 娘子(娘子)가 南嶺(南嶺)과 사향을 풍기면서 갑작스레 北庵(北庵) -향전(鄉傳)에는 남암이라 했다 에 와서 자고 가기를 청했다.

## 【원문-27】

日暮千山路  
行行絕四隣  
竹松陰轉邃  
溪洞響猶新(p. 788)

## 【해석】

첩첩산중에 날은 저문데  
가도 가도 인가는 보이지 않소  
송죽(松竹)의 그늘은 한층 그윽하고  
냇물 소린 한결 더욱 새롭소

## 【원문-28】

盼勉強從之，忽覺精神爽涼，肌膚金色，視其傍忽生一蓮臺。(p. 788)

## 【해석】

노힐부득은 마지못해 그 말에 따랐더니, 문득 정

신이 상쾌해짐을 느끼게 되고 살결이 금빛으로 변했다. 그 옆을 돌아보니 문득 한 연화대(蓮花臺)가 생겼다.

**【원문-29】**

兄弟二人, 禮念修行, 五臺進敬禮拜, 青在東臺滿月形山, 觀音眞身一萬常住, (赤)南臺麒麟山, 八萬菩薩爲首一萬地藏菩薩常住, 白方西臺長嶺山, 無量壽如來爲首一萬大勢至菩薩常住, 黑掌北臺相王山, 釋迦如來爲首五百大阿羅漢常住, 黃處中臺風爐山, 亦名地爐山, 毗盧遮那爲首一萬文殊常住, 眞如院地, 文殊大聖, 每日寅朝化現三十六形(三十六形 見臺山五萬眞身傳). 兩太子並禮拜, 每日早朝, 汲于洞水, 煎茶供養一萬眞身文殊. (p. 800)

**【해석】**

형제 두 사람은 예배하고 염불하면서 행실을 닦고 五臺에 나아가 공경하며 예배했다. 청색방인 동대의 滿月形 산에는 관음보살 진신 일만이 늘 계시고, 남대의 麒麟山에는 八萬 보살을 수위로 한 一萬 지장보살이 늘 계시고, 백색 방인 서대 長嶺山에는 무량수여래를 수위로 한 一萬대세지 보살이 늘 계시고, 흑색 방인 북대 相王山에는 석가여래를 수위로 한 五百 대아라한이 늘 계시고, 황색 방인 중대 風爐山 (또한 地爐山이라고도 한다.)에는 비로자나불을 수위로 한 一萬 문수보살이 늘 계시다. 眞如院에는 문수보살이 날마다 이른 아침에 三十六形(三十六形은 五萬 眞身傳에 보인다.)으로 化하여 나타났다. 두 태자는 함께 예배하고 날마다 이른 아침에 골짜기의 물을 길어다 차를 달여 一萬 진신의 문수보살에 공양했다.

**【원문-30】**

第一當寺護法敬僧儼欣伯欣兩明神及近岳等三位前, 立寶供養條(諺傳嚴欣伯欣二人, 捨家爲寺, 因名曰伯嚴, 仍爲護法神), 金堂藥師前木鉢, 月朔遞米條等.

已下不錄.(p. 804))

**【해석】**

첫째로, 절의 법을 지키던 敬僧이었던 嚴欣 伯欣의 두 明神과 近岳 등 三位 앞에 寶를 세워 공양할 조목, (민간에 전해 오기를 嚴欣 伯欣 두 사람이 집을 내놓아 절을 만들었으므로 그 때문에 절 이름을 伯嚴寺라 했으며, 이에 護法神이 되었다고 한다.) 金堂 藥師如來 앞의 나무 주발에는 매달 초하룻날 공양미를 갈아 놓을 일 등의 조목. 이하의 조목은 기록하지 않는다.

**【원문-31】**

時唐室有公主疾病, 高宗請救於三藏, 舉通自代, 通受教別處, 以白豆一斗, 呪銀器中, 變白甲神兵, 逐崇不克. 又以黑豆一斗, 呪金器中, 變黑甲神兵, 令二色合逐之, 忽有蛟龍走出, 疾逐瘳.(p. 836)

**【해석】**

이때 당나라 황실에서 공주가 병이 나서 고종은 삼장에게 치료해 주기를 청했더니, 삼장은 해통을 자기 대신으로 천거했다. 해통은 명령을 받고 따로 거처하며 흰 콩 한말을 은그릇 속에 넣고 주문을 외우니 그것이 변해서 흰 갑옷 입은 신병이 되어 병을 쫓았으나 이기지 못했다. 다시 검은 콩 한말을 금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우니 그것이 변해서 검은 갑옷 입은 신병이 되었다. 두 색의 신병에게 명령하여 합하여 병을 쫓게 하니 문득 교룡이 달아나고 병이 드디어 나았다.

**【원문-32】**

紫茅黃精壑肚皮  
蔽衣木葉非蠶機. ……(p. 857)

**【해석】**

자모와 황정으로 배를 채웠고  
입은 옷은 나뭇잎이지 짚 베가 아니다. ……

위 내용 중 人體와 關聯된 內容은 모두 3件이며, 나머지는 醫學과 직접적인 關聯이 없다. 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人體와 關聯이 있는 부분은,

첫째, 檀君神話에서 곰이 백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햇빛을 보지 않아,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는 마늘과 쑥이 주물 숭배(呪物崇拜)<sup>1)</sup>의 대상으로 매우 신성시 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난초로 음료를 만들고, 혜초로 술을 만들었다는 부분으로 이 시대에 이미 本草를 사용하여 飲料와 술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紫茅와 黃精으로 延命했다는 부분으로, 이 두 藥物을 佛道修練에 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黃精은 더욱이 朝鮮時代에서는 穀食代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기록<sup>2)</sup>이 있다.

醫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을 보면, 蒸棗와 蟠桃는 仙境에 있다고 하는 상상 속의 과일이고, 香, 蓮, 菴羅, 櫻은 佛敎와 關聯이 깊은 本草이며, 茅茨, 蘭, 桂木은 집의 지붕을 짓고, 生活 도구를 制作하는 용도 등으로 실려 있고, 蓼葉, 薤, 黍, 菽등은 比喩의 대상체로써 실려 있다. 以外에 栢, 栗은 寺의 名稱으로 사용이 되었다. 以上의 많은 本草가 醫療내용과는 관계없이 『三國遺事』의 內容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쉽게 볼 수 있고 자주 사용되었던 本草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2. 陰陽五行

陰陽五行과 관계 있는 內容은 모두 9件으로 다음과 같다.

### 【원문-1】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凡主

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p. 677)

### 【해석】

風伯·雨師·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등을 주관하고, 무릇 인간의 삼백예순여가지의 일을 주관하며, 人間세계에 계시면서 다스리고 교화시키셨다.

### 【원문-2】

王陰長一尺五寸, 難於嘉耦. 發使三道求之, 使至牟梁部, 冬老樹下, 見二狗嚙一屎塊如鼓大, 爭嚙其兩端, 訪於里人, 有一小女告云: “此部相公之女子, 洗滌于此, 隱林而所遺也.” 尋其家檢之, 身長七尺五寸. 具事奏聞, 王遣車邀入宮中, 封爲皇后, 群臣皆賀.(p. 696)

### 【해석】

왕은 陰莖의 길이가 한자 다섯 치가 되어 배필을 얻기 어려웠다. 그래서 使者를 三道에 보내어 배필을 구했다. 使者가 牟梁部에 이르렀는데 冬老樹 아래에서 개 두 마리가 크기가 복만한 똥 덩어리의 양쪽 끝을 물고 다투는 것을 보았다. 그 마을 사람에게 물으니 한 소녀가 알려주었다. “이부(牟梁部)의 相公의 딸이 여기서 빨래하다가 수풀 속에 숨어서 눈 것입니다.” 그 집을 찾아 살펴보니 그 여자의 신장이 일곱자 다섯 치나 되었다. 사실대로 상세히 아뢰었더니 왕은 수레를 보내어 그 여자를 궁중에 맞아 들여 황후로 삼았다. 여러 신하가 모두 경하했다.

### 【원문-3】

王曰: “畫花而無蝶, 知其無香, 斯乃唐帝欺寡人之無耦也. 蛙有怒形, 兵士之像, 玉門者, 女根也. 女爲陰也, 其色白, 白西方也, 故知兵在西方. 男根入於女根, 則必死矣. 以是知其易捉.”(p. 700)

### 【해석】

왕이 말하기를 “꽃을 그렸는데도 나비가 없었으므로

1) 都瑠淳. 『東아시아 文化와 韓國文化』, 서울: 교문사, 1995: 154-156.; 崔東熙. 『韓國의 原始宗敎와 東學』, 서울: 敎文社, 1995: 156.  
2) 『救荒叢要』, 京城: 石印堂印刷所, 1929: 20.

로 그 향기가 없음을 알았다. 이는 당나라 임금이나  
의 배우자가 없음을 모멸한 것이다. 또 개구리의 노  
한 형상은 병사의 형상이며, 옥문이란 것은 여자의  
생식기니, 여자는 陰이고 (陰은)그 색은 백색이며,  
백색은 서방이므로 군사가 서방에 있음을 알 수 있  
었으며, 남자의 생식기는 여자의 생식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므로 이로써 쉽사리 잠을 즐 알았다.”  
고 하였다.

【원문-4】

大王夫人逆行陰陽之道，其瑞如此。(p. 702)

【해석】

대왕의 부인이 음양의 도를 역행했으므로 나타난  
표징이 이와 같습니다.

【원문-5】

況與王后而居也，比如天之有地，日之有月，陽之  
有陰。(p. 747)

【해석】

하물며 (왕이) 왕후와 더불어 사는 것이, 비유컨  
대 하늘에 대하여 땅이 있고, 해에 대하여 달이 있으  
며, 陽에 대하여 陰이 있는 것과 같음에라!

【원문-6】

塔方四面五層，其彫鏤甚奇，石微赤斑色，其質良  
脆，非此方類也。本草所云點鷄冠血爲驗者，是也。(p.  
768)

【해석】

탑은 사면이 오층으로 그 조각은 매우 기묘하며,  
돌에는 얼은 붉은 무늬가 드리워져 있고 그 질이 좋  
고 부드러우므로 우리 나라의 것이 아니다. 本草란  
책에서 말한 닭의 뺨의 피를 찍어서 시험했다 한 것  
이 이것이다.

【원문-7】

天粧滿月四方裁  
地湧明豪一夜開  
妙手更煩彫萬佛  
眞風要使遍三才(p. 774)

【해석】

하늘은 만월(滿月) 같은 사방불을 마련했고  
땅은 명호(明豪)를 하룻밤 사이에 솟아 내었다  
교묘한 솜씨로 다시 급히 만불(萬佛)을 새겼으니  
진풍(眞風)을 삼재(三才 = 天地人)에 두루 퍼지  
게 할 것이다.

【원문-8】

青在東臺北角下，北臺南麓之末，宜置觀音房，安  
圓像觀音，及青地畫一萬觀音像，福田五員，晝讀八卷  
金經·仁王·般若·千手呪，夜念觀音禮懺，稱名圓  
通社。赤住南臺南面，置地藏房，安圓像地藏，及赤地  
畫八大菩薩爲首一萬地藏像，福田五員，晝讀地藏  
經·金剛般若，夜占察禮懺，稱金剛社。白方西臺南  
面，置彌陀房，安圓像無量壽，及白地畫無量壽如來爲  
首一萬大勢至，福田五員，晝讀八卷法華，夜念彌陀禮  
懺，稱水精社。黑地北臺南面，置羅漢堂，安圓像釋  
迦，及黑地畫釋迦如來爲首五百羅漢，福田五員，晝讀  
佛報恩經·涅槃經，夜念涅槃禮懺，稱白蓮社。黃處中  
臺，眞如院，中安泥像文殊不動，後壁安黃地畫毗盧遮  
那爲首三十六化形，福田五員，晝讀華嚴經·六百般  
若，夜念文殊禮懺，稱華嚴社。(p. 799)

【해석】

적색 방인 동대 북각 아래, 북대의 남쪽 기슭 끝  
에는 마땅히 관음방을 두어 원상의 관음보살과 푸른  
바탕에 그린 일만 관음 보살상을 모셔서, 북전승 오  
명은 낮에는 팔권 金經 仁王般若經 千手呪를 읽고  
밤에는 觀音經禮懺를 염송하고 그 곳을 원통사라 일  
컬어라. 적색방인 남대 남쪽면에는 지장방을 두어  
원상 지장 보살과 붉은 바탕에 그린 팔대 보살을 수

위로 한 일만 지장보살을 모시고, 복전승 오명은 낮에는 지장경과 금강반야경을 읽고 밤에는 집찰경 예참을 염송하고 금강사라 일컬어라. 백색 방인 서대 남쪽면에는 미타방을 두어 원상 무량수불과 흰 바탕에 그린 무량수여래를 수위로 한 일만 대세지 보살을 모시고, 복전승 오명은 낮에는 팔권의 법화경을 읽고, 밤에는 아미타불 예참을 염송하고 수정사라 일컬어라. 흑색방인 북대 남쪽면에는 나한당을 두어 원상 석가불과 검은 바탕에 그린 석가여래를 수위로 한 오백 나한을 모시고, 복전승 오명은 낮에는 불보은경과 열반경을 읽고 밤에는 열반경 예참을 염송하고 백련사라 일컬어라. 황색 방인 중대의 진원여에는 가운데는 이상 문수보살 부동상을 모시고 뒷벽에는 누런 바탕에 그린 비로자나불을 수위로 한 삼십육 화형(화형 = 앞에 나타난 삼십육의 문수보살)을 모시고, 복전승 오명은 낮에는 화엄경과 육백 반야경을 읽고 밤에는 문수보살 예참을 염송하고 화엄사라 일컬어라.

#### 【원문-9】

兄弟二人, 禮念修行, 五臺進敬禮拜. 靑在東臺滿月形山, 觀音眞身一萬常住, (赤)南臺麒麟山, 八萬菩薩爲首一萬地藏菩薩常住, 白方西臺長嶺山, 無量壽如來爲首一萬大勢至菩薩常住, 黑掌北臺相王山, 釋迦如來爲首五百大阿羅漢常住, 黃處中臺風爐山, 亦名地爐山, 毗盧遮那爲首一萬文殊常住, 眞如院地, 文殊大聖, 每日寅朝化現三十六形(三十六形 見臺山五萬眞身傳). 兩太子並禮拜, 每日早朝, 汲于洞水, 煎茶供養一萬眞身文殊. (p. 800)

#### 【해석】

형제 두 사람은 예배하고 염불하면서 행실을 닦고 五臺에 나아가 공경하며 예배했다. 청색방인 동대의 滿月形 산에는 관음보살 진신 일만이 늘 계시고, 남대의 麒麟山에는 八萬 보살을 수위로 한 一萬

지장보살이 늘 계시고, 백색 방인 서대 長嶺山에는 무량수여래를 수위로 한 一萬대세지 보살이 늘 계시고, 흑색 방인 북대 相王山에는 석가여래를 수위로 한 五百 대아라한이 늘 계시고, 황색 방인 중대 風爐山(또한 地爐山이라고도 한다)에는 비로자나불을 수위로 한 一萬 문수보살이 늘 계시었다. 眞如院에는 문수보살이 날마다 이른 아침에 三十六形(三十六形은 五萬 眞身傳에 보인다)으로 化하여 나타났다. 두 태자는 함께 예배하고 날마다 이른 아침에 골짜기의 물을 길어다 차를 달여 一萬 진신의 문수보살에 공양했다.

以上の 內容을 살펴보면 天地, 日月, 男女 등의 사물을 待對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陰陽思想을 거슬러서는 안되는 自然의 理致로 받아들이고 있다.

『紀異』에서 桓雄이 五事를 主管한다는 內容과 五臺의 內容은 五行思想의 實用的 側面으로 理解할 수 있다.

이러한 陰陽五行의 表現은 當時에 事物과 現狀을 觀察하는 方法으로 陰陽五行을 널리 사용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그 영향이 政治 社會 各方面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2.3. 疾病의 原因 및 治療

疾病의 原因 및 治療에 關聯된 內容은 모두 19件으로 다음과 같다.

#### 【원문-1】

初南解王薨, 子弩禮讓位於脫解. 解云: “吾聞聖智人多齒.” 乃試以餅噉之. 古傳如此. (p. 688)

#### 【해석】

처음 南解王이 돌아가셨을 때 아들 弩禮가 脫解에게 왕위를 사양했다. 脫解는 “나는 성인과 슬기로운 사람은 이가 많다고 들었다.” 하고 이에 떡을 물

어 시험했다. 옛날부터 이와 같이 전하고 있다.

【원문-2】

凡有德者多齒，宜以齒理試之。(p. 689)

【해석】

대개 덕이 있는 자는 이가 많으니 마땅히 잇금으로 시험해 보자.

【원문-3】

日日而大，踰十餘晨昏，身長九尺，則殷之天乙，顏如龍焉，則漢之高祖，眉之八彩，則有唐之高，眼之重瞳，則有虞之舜。(p. 744)

【해석】

(어린이는) 나날이 자라 십여 일을 지나니, 키가九척인 것은 은나라 천을(天乙 = 탕왕)과 같았고, 얼굴이 용안(龍顏)인 것은 한나라 고조와 같았으며, 눈썹이 팔채(八彩)인 것은 당나라 요 임금과 같았고, 두 눈동자(重瞳)를 가진 것은 우나라 순임금과 같았다.

【원문-4】

其子間元卿，續而克禋，端午日謁廟之祭，英規之子俊必又發狂，來詣廟，俾撤間元之奠，以己奠陳亨，三獻未終，得暴疾，歸家而斃。(p. 749)

【해석】

그 아들 간원 경(間元卿)이 아버지들 이어 제사를 받들었다. 단오날 알묘제(謁廟祭)때, 영규의 아들 준필(俊必)이 또 미친 증세가 일어나 사당에 와서 간원(間元)이 차려 둔 제물을 치우게 하고 자기의 제물을 차려서 지내더니 삼헌(三獻)이 채 끝나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 집에 돌아가서 죽었다.

【원문-5】

幾臨事畢，而甚勞倦，忽一夕夢見七八介鬼神，執

縲繩握刀劍而至，云：“備有大怒，故加斬戮。”其使以謂受刑而慟楚，驚懼而覺，仍有疾瘵，勿令人知之，宵遁而行，其病不間，渡關而死。(p. 750)

【해석】

거의 이 일이 끝날 무렵에 이르러 (양전사는) 몹시 피곤해지더니 문득 어떤 밤 꿈에七八명의 귀신을 보았는데, 밧줄을 쥐고 칼을 잡고 와서 말했다. “너에게 큰 죄악이 있으므로 베어 죽이겠다.” 양전사는 형을 받고 아프다고 하면서 놀라 깨었다. 이내 虛勞病이 나서 남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밤에 도망해 갔는데, 그 병이 낫지 않으므로 관문(關門)을 지나서 죽었다.

【원문-6】

時王女病革，使召墨胡子，焚香表誓，王女之病尋愈。(p. 756)

【해석】

이 때 왕녀가 병이 위급해서 목호자를 불러다가 향을 피우고 소원을 말하니, 왕녀의 병이 즉시 나았다.

【원문-7】

三年，時成國公主疾，巫醫不效，勅使四方求醫，師率然赴關，其疾遂理。(p. 757)

【해석】

(미추왕) 三년에 이때 成國공주가 질병을 앓았는데 무당과 의원이 치료해도 효험이 없었으므로, 칙명을 사방으로 보내어 의원을 구하게 하였다. 법사(아도)가 급히 대렬에 들어가서 (치료하니) 그 질병이 드디어 나았다.

【원문-8】

燾大生慙懼，遂感瘧疾，崔竊二人，相次發惡病，燾以過由於彼，於是誅滅二家門族，宣下國中，大張佛

法、始後不知所終。(p. 758)

### 【해석】

척발도는 매우 부끄럽고 두려워하더니 마침내 역질(疫疾)에 걸렸으며 최화와 구점지 두 사람도 차례로 몹쓸 병에 걸렸다. 척발도는 이 죄과가 그들 때문이라 하여 이에 두 집의 종족을 죽여 없애고, 나라안에 선언하여 불교를 크게 퍼뜨렸다. 당시에는 그 뒤에 그의 죽은 곳을 알 수 없었다 한다.

### 【원문-9】

景德王代、漢岐里女希明之兒、生五稔而忽盲、一日其母抱兒、詣芬皇寺左殿北壁畫千手大悲前、令兒作歌禱之、遂得明。(p. 790)

### 【해석】

경덕왕때에 한기리(漢岐里)에 사는 여자 희명(希明)의 아이가 태어난지五年만에 갑자기 눈이 멀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분황사 좌전(左殿)북쪽에 그린 천수관(千手觀音)앞에 나아가서 아이를 시켜 노래를 지어 빌었더니,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다.

### 【원문-10】

安嘗叙光云：本國王染患、醫治不損、請光入宮、別省安置、夜別二時爲說深法、受戒懺悔、王大信奉。(p. 808)

### 【해석】

원안이 일찍이 원광에 대해 서술하여 말하길 본국(신라)의 왕이 병환이 나서 의사가 치료를 해도 병이 덜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광을 청해다 궁중에 들어 별성에 있게 했다. 밤마다 두 시간이나 심오한 법을 말하여 戒를 받게 하여 참회케 했더니 왕이 크게 신봉했다.

### 【원문-11】

七歲、謂其母曰：“家有何事、賓客之多也？”

母曰：“家公發惡疾將死矣、爾何不知？”

助曰：“吾能右之”

母異其言、告於公、公使喚來、至坐床下、無一語、須臾瘡潰、公謂偶爾、不甚異之、既壯、爲公養鷹、甚愜公意、初公之弟、有得官赴外者、請公之選鷹歸治所、一夕公忽憶其鷹、明晨擬遣助取之、助已先知之、俄頃取鷹、味爽獻之、公大驚悟、方知昔日救瘡之事、皆叵測也、靈異既著、遂出家爲僧、易名惠空、常住一小寺、每猖狂大醉、負篋歌舞於街巷、號負篋和尚、所居寺因名夫蓋寺、乃篋之鄉言也。(p. 817)

### 【해석】

(이 때)우조는 나이가 칠세였는데, 그 어머니에게 말했다. “집에 무슨 일이 있기에 손님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주인께서 악병(惡病)이 나서 장차 돌아가게 되었는데 너는 어찌 알지 못하는냐?”

우조가 말하였다. “제가 병을 고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이상히 여겨 공에게 알렸다. 공이 그를 불러오게 하니, 와서 평상 밑에 앉아서 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잠깐 사이에 몹쓸 종기가 터져 버렸다. 공은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그다지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 이미 자라 공을 위해 매를 길렀는데 공의 마음에 띄 들었다. 처음에 공의 아우로서 벼슬을 얻어 지방으로 부임하는 이가 있었는데, 공이 골라 놓은 매(좋은 매)를 청하여 얻어 가지고 치소(治所)고 갔다. 하루 저녁에 공은 문득 그 매를 생각하게 되어 이튿날 새벽에는 우조를 보내어 매를 가져오려 했다. 우조는 이미 이것을 먼저 알아채고 잠깐 사이에 매를 가져와서 새벽에 공에게 드렸다. 공은 크게 놀라 깨달아 그제야 전일에 몹쓸 종기를 치료한 일들이 모두 측량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우조는) 신령스럽고 이상함이 이미 나타났으므로

드디어 출가하여 중이 되어 이름을 혜공(惠空)이라 바꾸었다. (그는) 늘 한 작은 절에 살면서 언제나 미친 것처럼 크게 취해서 삼태기를 지고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춘 까닭에, 그를 부케화상(負簣和尚)이라 불렀으며 그가 있는 절을 부개사(夫蓋寺)라 했다. (부개는) 곧 제(簣)의 우리말이다.

**【원문-12】**

善德王德曼，遵疾彌留，有興輪寺僧法揚，應詔侍疾，久而無効，時有密本法師，以德行聞於國，左右請代之，王詔迎入內，本在宸仗外，讀藥師經，卷軸纏周，所持六環，飛入寢內刺一老狐與法揚倒擲庭下，王疾乃瘳，時本頂上發五色神光，觀者皆驚。(p. 835)

**【해석】**

善德王 德曼이 병환을 얻어 오래 낫지 않았다. 興輪寺 승려 법척이 있어 임금에게 불리어 병을 치료했으나, 오래도록 효과가 없었다. 이때 밀본법사는 德行으로 나라에 알려져 있었으므로, 좌우의 신하들이 법척을 밀본법사와 바꾸기를 청했다. 왕이 그들 중 안으로 불러들여 맞이하니 밀본은 왕의 자리 옆에서 藥師經을 읽었다. 經을 다 읽자마자 가지고 있던 육환장이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 늙은 여우 한 마리와 중 법척을 끌러 뜰 아래에 거꾸로 내던지니 왕의 병환이 바로 나았다. 이때 밀본의 정수리 위로 五色의 신비로운 빛이 비추니 보는 사람이 모두 놀랐다.

**【원문-13】**

又承相金良圖爲阿孩時，忽口噤體硬，不言不遂，每見一大鬼率小鬼來，家中凡有盤肴，皆啖嘗之，巫覡來祭，則羣聚而爭侮之，圖雖欲命撤，而口不能言，家親請法流寺僧亡名來轉經，大鬼命小鬼，以鐵鎚打僧頭，仆地，嘔血而死，隔數日，遣使邀本，使還言：“本法師受我請將來矣，衆鬼聞之皆失色，小鬼曰：“法師至，將不利，避之何幸。”大鬼侮慢自若曰：“何害之有”

俄而有四方大力神皆屬金甲長戟，來捉群鬼而縛去，次有無數天神，環拱而待，須臾本至，不待開經，其疾乃治，語通身解，具設件事，良圖因此篤信釋氏，一生無怠。(p. 835)

**【해석】**

또, 승상 김양도가 어렸을 때 갑자기 입이 붙고 몸이 굳어져 말도 못하고 몸도 쓰지 못했다. 매번 볼 때마다 한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거느리고 와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맛보는데, 무당이 와서 제사를 지내면 못 귀신들이 모여서 다투어 무당을 모욕했다. 양도는 비록 귀신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싶었으나, 입이 붙어 말을 하지 못 하였다. 양도의 아버지가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범류사의 승려를 청해다 經을 轉讀했더니 큰 귀신이 작은 귀신에게 명령을 하여 쇠몽둥이로 중의 머리를 때려서 중은 땅에 넘어져 피를 토하고 죽었다. 며칠 후에 사령을 보내어 밀본을 맞아 오게 하니 사령은 돌아와 말했다. “밀본 법사께서 우리 청을 받아들여 장차 오실 것입니다.” 여러 귀신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하얗게 질렸다. 작은 귀신이 말했다. “법사가 오면 장차 이롭지 않을 것이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귀신이 거만을 부리면서 말했다. “무엇이 해될 것이 있으랴.” 조금 후에 사망에서 쇠 갑옷과 긴 창으로 무장한 大力神이 와서 귀신들을 잡아 묶어 가고, 그 다음에 수많은 天神들이 둘러서서 기다렸다. 잠깐 뒤에 밀본이 왔는데 경을 펴기도 전에 그 병이 바로 나아져 말이 통하고 몸이 풀려서 사실을 자세히 말했다. 양도는 이로 말미암아 불교를 독실히 믿어 한 평생 게을리 하지 않았다.

**【원문-14】**

又金庚信嘗與一老居士交厚，世人不知其何人，于時公之戚秀天，久染惡疾，公遣居士診衛。(p. 835)

**【해석】**

또 김유신은 일찍이 한 늙은 거사(居士)와 교분이 두터웠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 때 [유신] 공의 친척 수천(秀天)이 오랫동안 악질에 걸려 있었으므로 공은 거사를 보내어 진찰하여 보호하게 했다.

#### 【원문-15】

時唐室有公主疾病，高宗請救於三藏，舉通自代，通受教別處，以白豆一斗，呪銀器中，變白甲神兵，逐崇不克，又以黑豆一斗，呪金器中，變黑甲神兵，令二色合逐之，忽有蛟龍走出，疾遂瘳。(p. 836)

#### 【해석】

이때 당나라 황실에서 공주가 병이 나서 고종은 삼장에게 치료해 주기를 청했더니, 삼장은 혜통을 자기 대신으로 천거했다. 혜통은 명령을 받고 따로 거처하며 흰 콩 한말을 은그릇 속에 넣고 주문을 외우니 그것이 변해서 흰 갑옷 입은 신병이 되어 병을 쫓았으나 이기지 못했다. 다시 검은 콩 한말을 금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우니 그것이 변해서 검은 갑옷 입은 신병이 되었다. 두 색의 신병에게 명령하여 합하여 병을 쫓게 하니 문득 교룡이 달아나고 병이 드디어 나았다.

#### 【원문-16】

王女忽有疾，詔通治之，疾愈，王大悅。(p. 837)

#### 【해석】

왕녀에게 문득 병이 나서 (왕이) 혜통을 불러 치료케 했더니 병이 나았으므로 왕이 크게 기뻐했다.

#### 【원문-17】

初神文王發疽背，請候於通，通至，呪之立活，乃曰：「陛下曩昔爲幸官身，誤決藏人信忠爲隸，信忠有怨，生生作報，今茲惡疽，亦信忠所崇，宜爲忠創伽藍，奉冥祐以解之。」(p. 837)

#### 【해석】

처음에 신문왕이 등창이 나서 혜통에게 진찰해 주기를 청하므로, 혜통이 와서 주문을 외우니 즉시 나았다. 혜통은 이에 말했다. "폐하께서는 전생에 재상의 몸이 되어 양민 신충을 그릇 판결하여 종으로 삼았으므로, 신충이 원한을 품고 윤회 환생할 때마다 보복하게 됩니다. 지금 이 등창도 또한 신충의 탈입니다. 마땅히 신충을 위해 절을 세워 명복을 빌어 원한을 풀게 해야 할 것 입니다."

#### 【원문-18】

忽寢疾彌月，有一尼來謁候之，以華嚴經中善友原病之設爲言曰：「今師之疾，憂勞所致，喜笑可治。」乃作十一樣面貌，各作俳諧之舞，巉巖戾削，變態不可勝言，皆可脫頤，師之病不覺洒然。(p. 843)

#### 【해석】

경흥이 문득 병이 나서 한 달 동안이나 되었다. 한 여승이 와서 그를 문안하고 병상태를 보고는, 華嚴經 가운데 착한 벗이 병을 치료해 준다는 얘기를 이야기거리로 삼아 말하였다. "지금 스님의 질병은 근심으로 생긴 것이니 즐겁게 웃으면 낫을 것입니다." 이에 열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 저마다 우스꽝스런 춤을 추게 하니 뾰족하기도 하고 작은 듯도 하여 그 변하는 모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모두 너무도 우스워 턱을 떨어뜨릴 지경이었다. (이에) 경흥의 병이 자기도 모르게 다 나았다.

#### 【원문-19】

第四十哀莊代，有沙門正秀，寓止皇龍寺，冬日雪深，既暮，自三郎寺還，經由天巖寺門外，有一乞女產兒，凍臥瀆死，師見而憫之，就抱，良久氣蘇，乃脫衣以覆之，裸走本寺，苦草覆身過夜。(p. 851)

#### 【해석】

제사십대 애장왕때에 중 정수가 황룡사에 우거해

있었다. 겨울날 눈은 깊고 이미 날이 저물어서 삼랑사로부터 돌아오는데 천암사 문밖을 경유하게 되었다. (그때) 한 여자 거지가 아이를 낳고는 언 채 누워서 거의 다 죽어 가고 있었다. 정수 스님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안아 주니 한참 후에 소생했다. 이에 옷을 벗어 덮어 주고 벌거벗은 채 본 절로 달려와서 거적 풀로 몸을 덮고 밤을 세웠다.

以上の 內容을 살펴보면 疾病의 原因으로는 鬼神과 怨魂, 憂勞 등이 나오고, 治療는 佛教의 方法이 主流를 이룬다. 물론 巫와 醫師도 등장하나 주로 僧侶의 醫術行爲를 正當化시키고, 強調하기 위한 補助的인 役割 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疾病의 原因도 주로 業과 緣에 의한 佛教的 思想(緣起說)이 主流를 이루는데, 이렇게 疾病의 原因과 治療에 佛教의 內容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은 『三國遺事』를 저술한 然의 身分이 僧侶였기 때문인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 2.4. 醫政制度

醫政制度에 관한 部分은 1件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문】

將風伯雨師雲師，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在世理化。(p. 677)

##### 【해석】

風伯·雨師·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등을 주관하고, 무릇 인간의 삼백 예순여가지의 일을 주관하며, 人間세계에 계시면서 다스리고 교화시키셨다.

『三國遺事』에는 三國時代의 醫政制度에 대한 기록은 없고, 檀君神話의 內容中에 그 기록이 1件 보일 뿐이다. 즉, 桓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人間世上을 教化시키고 다스리기 위해, 여러 官職을 단

들게 되었는데, 이 중에는 疾病治療를 擔當하는 官職이 있다. 이는 上古時代때부터 醫療에 대한 認識이 매우 높았음을 나타내는 證據이다.

### 3. 結 論

1. 上古時代에 마늘과 쪽은 呪物崇拜의 대상으로 매우 신성시 되었으며, 三國時代에는 本草를 이용하여 간단한 飲料와 술을 만들었다. 또한, 紫茅와 黃精은 佛道修練에 이용되었다. 이밖에 茅茨, 蘭, 桂木 등은 當時에 흔히 사용되었던 本草로 推測할 수 있다.

2. 三國時代에는 陰陽五行思想을 事物을 觀察 研究하는 普遍的 方法으로 사용하였고, 陰陽五行思想이 政治 社會등 各 分野에 영향을 미쳤다.

3. 疾病의 原因 및 治療는 주로 佛敎의인 內容이 많은데 이는 지은이의 身分이 僧侶이기 때문인 것으로 思料된다.

4. 檀君神話에 疾病을 擔當하는 官職이 보이는 것은 上古時代부터 醫療에 對한 認識이 매우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이재호. 『삼국유사』. 서울: 광신출판사, 1993.
2. 都絜淳. 『東아시아 文化와 韓國文化』. 서울: 교문사, 1995.
3. 崔東熙. 『韓國의 原始宗教와 東學』. 서울: 敎文社, 1995.
4. 『救荒撮要』. 京城: 石印堂印刷所, 1929.

